

보성, 지역발전 이끌 미래 인재 양성 나선다

교육경비 22억 3000여 만원 지원 적극 투자

초등학생 100명 대상 '새싹 키움 장학금' 신설도

보성군은 지역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투자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총 22억 3000여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보성교육지원청에 지원한다.

교육복지 실현 9개 사업 11억 9000만원, 특기적성 지원 3개 사업 2억 4000만원, 학력 증진 지원 5개 사업 7억 5000만원 등을 통해 전 세대 학생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보성군은 무상급식·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물론 통학 여건이 어려운 초·중 학생을 위한 택시비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강화로 학생과 학부모도

두가 체감하는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와 주말 토요일 프로그램을 통한 적성 개발과 학력신장 지원 등을 통해 농촌 교육 격차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성군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확보, 결백면·문덕면에 4동씩 조립식 주택 8동을 신축하는 한편 폐교 위기 학교에 학생을 유치하는 등 젊은층 인구 유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군은 지역 내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보성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청



소년 진로 체험 활동 확대, 영어 체험 교실과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지역 내 6개 고등학교에는 각 학교 특성을 반영한 인재 육성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인문계고 3개 교에는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성군장학재단은 올해 상·하반기에 730여명에게 5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새싹키움 장학금을 신설하기도 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보성에서 당당하게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광양, 내달 2일까지 신청 접수

광양시가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해 2025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시에서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1980. 1. 1.~2007. 12. 31. 출생자 이하)의 청년 노동자·사업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월 287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5월 2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우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서류를 등기로 보내야 한다.

단,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신청 기간 내 도착분까지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는 오는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적립을 시작할 예정이다.

곡성, 추경예산 5049억원 편성... 지역개발·중심지 활성화

곡성군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5049억원을 편성했다.

곡성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049억원을 편성하고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지난 1회 추경예산 4911억원보다 138억원(2.8%) 증액됐다. 일반회계 4768억원, 특별회계 281억원이다.

추경예산 반영된 주요 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3억원, 곡성을 중심지 활성화 사업 16억원, 농림분야 육성 30억원, 지역개발 36억원, 환경 17억원, 문화관광 4억원, 일반행정 3억원 등이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준비 부담분은 부서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로 반영했으며 하수도 사업 등 연내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추경예산에 소모되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영여금 등의 세입을 반영했다"며 "지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발주가 가능한 지역개발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8일부터 열리는 제272회 의회 임시회에 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9일 최종 확정된다.

【곡성=홍경백 기자

구례군의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구례군의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장길선 의장은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장 의장은 "의미 있는 캠페인인 만큼 구례군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하기로 했다"며 "인구문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구례군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물관리 현장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레지사는 지난 17일 구례군의회, 명예지사장, 운영대의원, 수리시설감시원 등 7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물관리 현장설명회는 농지은행사업 홍보, 급수예고·농업인만족도 홍보,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교육, 농업인 영농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건사고 사례 및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임문희 지사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금년에도 시설물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례지사 전 직원은 농업인의 안전 영농,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양, 대규모 문화행사로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5월~11월, 전통예술·e스포츠·영화제·미디어아트 등 7개 개최

광양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7개의 대규모 문화행사를 잇따라 개최해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광양시의 문화예술행사는 전통예술의 정수를 선보이는 ▲굿 GOOD보러가자 공연을 시작으로, 젊은 세대의 열정을 담은 ▲청소년 e스포츠 대회, 공연예술 지역 유흥지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작발레, 주민 화합을 위한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남해안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담은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 영화 애호가들을 위한 ▲남도영화제, 첨단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일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까지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펼쳐진다.

'굿보러가자'는 2004년부터 20여년간 총 121회에 걸쳐 진행된 국가유산진흥원의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개최지를 선정하며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왔다.

광양시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다



시 개최지로 선정됐다. 오는 5월 29일 광양 백운아트홀에서 열리는 '2025 굿보러가자 인 광양'은 무형유산과 지역 고유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전통예술 공연으로,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광양시가 주관하는 행사다.

7월에는 청소년들의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는 '제2회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오는 9월 5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주제로 풀어낸 창작발레 '표류'가 광양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남해안남중권발전합의회가 주최하고, 광양시와 한국예총광양지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8회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가 열린다.

오는 9월 20일, 광양 서천변에서는 여수MBC가 주관하고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세 도시가 공동 후원하는 '제15회 광양만권 화합 콘서트'가 열린다. 모든 공연 과정은 녹화되어 여수MBC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또한 광양시는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미래지향적인 문화콘텐츠를 선보이는 '2025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과 광양시가 주최하고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이 열린다.

【광양=조순익 기자

순천, 마을여행 브랜드로 키운다

마을스테이 브랜드 발굴·로컬여행주간 본격 착수

순천시가 지역 마을을 거점으로 한 새로운 체류형 관광 브랜드 '순천 마을스테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순천마을스테이 브랜드 발굴 및 2025 로컬여행주간 운영' 영역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의 시작을 알렸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순천마을여행'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순천의 마을이 가진 고유한 자원과 일상 속 이야기를 관광 콘텐츠로 발굴해, '머무는' 여행을 넘어 '살을 체험하는' 여행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마을 여행자원 조사 ▲순천마을스테이 BI(Brand Identity) 개발 ▲마을호스트(운영주체) 육성 ▲마을별 숙소·식당·체험 연계 콘텐츠 발굴 ▲2025 순천로컬여행주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25년 8월부터 3개월간 운영될 '순천 로컬여행주간'에서는 실제로 관광객이 마을에서 자고, 먹고, 체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순천의 원도심·순천만치유관광 권역을 중심으로, 자연·문화·음식·힐링자원을 연계한 '슬로우스테이'형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여행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캠퍼, SNS 이벤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의 숙소 예약 플랫폼과 연계해 실질적인 방문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 시민 모두 보장 시민안전보험 운영

28개 항목까지 보장 확대... 사고·재난 피해 시 자동 가입 혜택

광양시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28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개 물림 사고 △골절 수술 위로금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애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골절수술위로금, 개물림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총 46건의 사고에 대해 6,400만 원이 지급됐다.

【광양=조순익 기자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 한마음 축제'

오늘 상인회원 화합·지역경제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

곡성군은 21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상인회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는 매년 선진시장 탐방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고 회원 간 단합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축제는 전통시장 상인회 주최로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내 중

랑무대에서 진행되며, 축하공연, 상인 노래자랑, 윷놀이,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원영수 상인회장은 "상인회 한마음 축제는 회원 간 단합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행사가 될 것"이라며 "상인회원 모두가 축제를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곡성=홍경백 기자

순천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시정질문·일반안건 심의 등 9일간 일정 마무리

순천시의회의는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순천시 스포츠진흥법 제정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우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서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이복남 의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을, 신정란 의

원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양동진 의원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정홍준 의원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이후에는 김태훈 의원이 연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강형구 의장은 집행부에 "지난 4월 4일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고,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애도를 표하며 폐회사를 마무리했다.

【순천=조순익 기자